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국인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와 신용 연체 우려된다”
- Bloomberg: 뉴욕 제조 활동 둔화... 주문 및 출하 줄어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국채 2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 유가 인하로 인플레이 우려 완화
- WSJ: 골드만 삭스, 3분기 실적 45% 상승
- Bloomberg: 시티 그룹, 전반적으로 수익 상승... 트레이딩 부분 예상 깨
- Bloomberg: BofA, 영업 실적 예상치 상회
- YahooFinance: Schwab, 부채 상환에 실적 호조로 주가 상승

[미국 대선]

- Bloomberg: 블룸버그 설문,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인플레이와 미 경제 성장 같을 것”

[주택]

- WSJ: 주택 업체들, 집값 비싸 ‘모기지 바이다운’ 시행

[오일]

- WSJ: IEA, 3개월째 석유 수요 예측 하향 조정

[반도체]

- Bloomberg: 미국, 엔비디아와 AMD의 AI칩 수출 일부국한테 상한선 조정

[중국 경제]

- WSJ: 중국 수출,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물류 업계, 계절 채용 늘리지 않는다
- Bloomberg: Walgreens, 수요 줄어 미국 매장 14% 문 닫는다
- WSJ: 보잉, 현금 고갈 막기 위해 100억 달러 주식 매각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US consumers see higher long-run inflation, rising delinquency risk

미국인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와 신용 연체 우려된다”

- 오늘 화요일 뉴욕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난 2020년 4월 이래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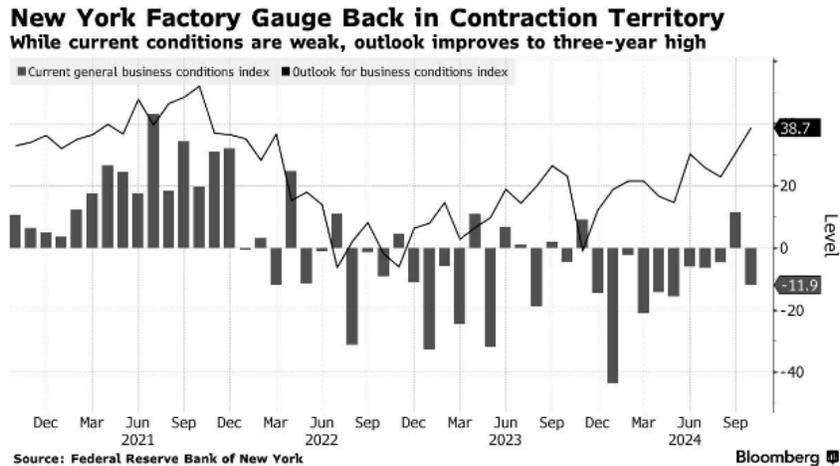
올라갈 것이라고 지난달에 말했다.

- 지금부터 내년 인플레는 3%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3년 후의 인플레는 2.7%로 예상했다. 지난 8월에는 2.5%를 예상했었다.
- 5년 후에는 인플레가 2.9%로 상승할 것으로 보았는데, 8월 조사에서는 2.8%였다. 이번 발표는 연준의 소비자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다.
- 또한 보고서를 보면 신용 접근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은 개선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신용 연체율은 계속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3개월간 연체 평균 가능성은 4개월 연속 상승한 14.2%을 기록했다. 8월의 13.6%보다 높은 수치다. 미국인들의 용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New York Manufacturing Contracts as Orders, Shipments Weaken
뉴욕 제조 활동 둔화... 주문 및 출하 줄어

- 뉴욕주 제조 활동이 10월 들어 위축하고 있다. 주문과 출하가 약세를 보이면서 제조업이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오늘 화요일 뉴욕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도 23.4 줄어들어 5개월간 가장 낮은 마이너스 11.9를 기록했다. 제로 미만은 위축이며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았다.
- 그러나 다행히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향후 6개월간의 전망은 3년간 가장 높은 38.7을 기록했다. 뉴욕주 제조업체들은 뉴욕주 경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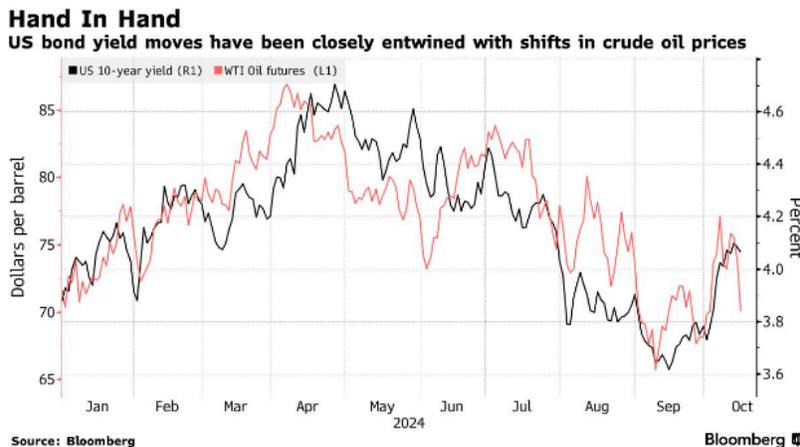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easuries Rise Most In Two Weeks as Oil Eases Inflation Fears**미 국채 2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 유가 인하로 인플레이 우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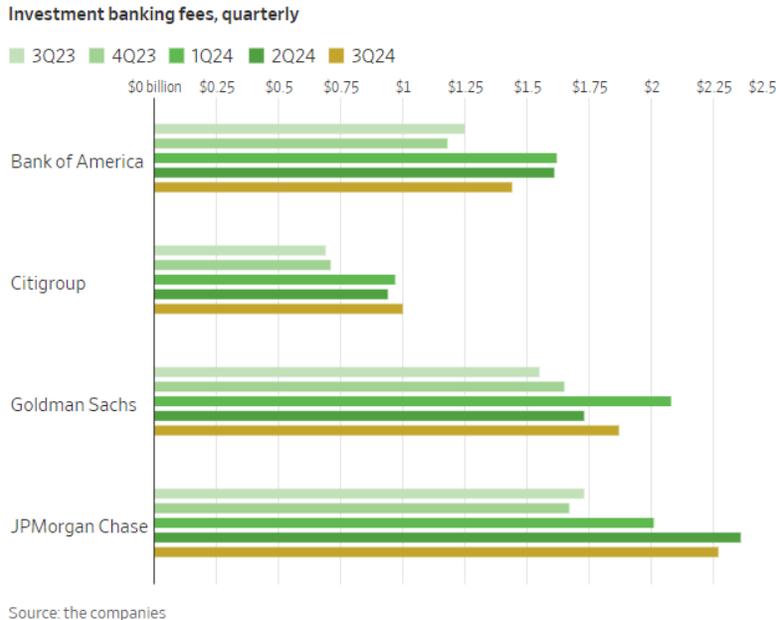
-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 국채가 2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10년물 국채가 2개월 반 만에 최고치에서 5 베이시스 포인트 줄어든 5.05%로 거래되고 있다.
- 유가가 오늘 화요일 오전에 배럴당 70불 아래로 5% 이상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오일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들은 현재 중동 사태에 따른 가격 압력과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인플레이 정책 전망에 대해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Goldman Sachs' Wall Street Businesses Gain Steam, Sending Profit Up 45%**골드만 삭스 3분기 실적 45% 상승**

- 월가의 3분기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낮은 금리, 안정된 경제, 그리고 이 은행의 당초 핵심 업무인 트레이딩과 딜 메이킹(인수 합병 등 거래 주도) 비즈니스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큰 수익을 올렸다.
- 골드만 삭스는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후에 개인 용자에서 벗어나 투자 은행 자산과 자산 관리 부분 확대를 전략 변경을 꾀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Citi Notches Gains Across Board as Trading Outdoes Expectations

시티 그룹, 전반적으로 수익 상승... 트레이딩 부분 예상 깨

- 시티그룹 트레이더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기간의 3분기 중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3분기 마켓 부문에서 수익이 1% 상승해 48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몇 주 전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수익 감소를 경고했는데,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인 것이다. 이는 주식 거래 수익에서 32%의 상승 탓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ofA Investment Bankers, Traders Help Earnings Top Estimates

BofA, 영업 실적 예상치 상회

- BofA 은행의 순이자 소득이 예상을 뛰어넘고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면서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 구체적으로 3분기에 주식과 고정 수입, 통화, 상품 거래 트레이딩의 수익이 12% 상승한 49억3천만 불을 기록했다. 투자은행 역시 예상을 뛰어넘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딜메이킹이 반등해 분석가들의 주당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Schwab Soars on Earnings Beat as Firm Pays Down Costly Debt
Schwab, 부채 상황에 실적 호조로 주가 상승

- Charles Schwab은 주당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힘든 부채를 통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힘든 상황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업의 올해 3분기 조정된 순수입이 15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약간 상승했으며, 3분기 주당 순이익 조정치가 77을 기록했다.

YahooFinance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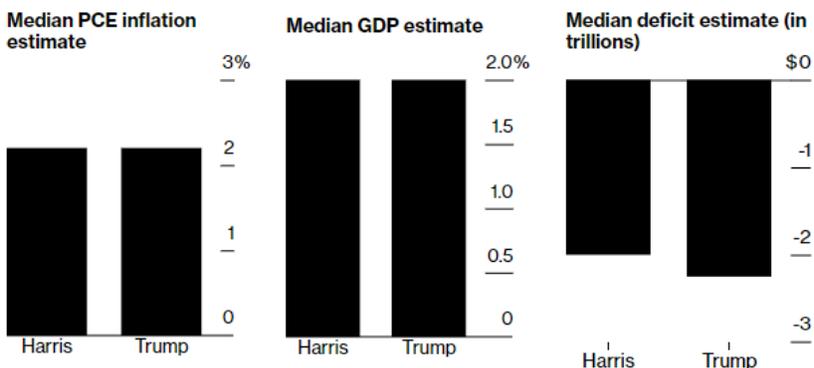
[미국 대선]

Bloomberg: Inflation, GDP Would Be Same Under Harris or Trump, Survey Says
블룸버그 설문,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인플레이와 미 경제 성장 같을 것”

-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해리스가 경제 전반에 걸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되든 인플레이와 미 경제 성장 전망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29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PCE(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향후 4년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간 평균 2.2%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 경제성장률은 연간 2%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The US Economy Under Harris vs. Trump

Economists predict the major difference would be the size of the deficit



Source: Bloomberg survey of 29 economists Oct. 7-10
Note: Estimates are for the average of each measure over the next four years

Bloomberg 기사

[주택]

**WSJ: High Home Prices Force Builders to Offer Mortgage Buydowns—
and More****주택 업체들, 집값 비싸 ‘모기지 바이다운’ 시행**

- 미 주택 개발업체들이 모기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모기지율 바이다운’을 시행하고 있다.
- 모기지율 바이다운은 주택 구매자가 초기 몇 년 동안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모기지 대출의 첫 몇 년 동안 이자 비용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로 월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 이 같은 바이다운 비용으로 주택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택 가격을 인하하는 등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한편 주택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소유했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경우 이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WSJ 기사

[오일]

**WSJ: IEA Trims Oil-Demand Forecast for Third Consecutive Month
IEA, 3개월째 석유 수요 예측 하향 조정**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올해 글로벌 수요 증가율을 하루 90만3천 배럴에서 86만2천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연속 하향 조정이다. 내년 수요 증가율은 하루 95만4천 배럴에서 99만8천 배럴로 상향 조정했다.
- IEA는 중국 석유 수요가 아직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IEA는 3분기 글로벌 수요는 하루 68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4분기 중국이 전면 봉쇄에 들어간 이후 가장 느린 성장 속도다. 중국 수요는 4월 이후 하루 19만 배럴 감소해 왔고, 8월에 작년보다 하루 50만 배럴 감소했다.
- IEA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으로 석유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EA는 올해 4분기와 2025년 연간 수요가 하루 22만 배럴 증가해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반도체]**Bloomberg: US Weighs Capping Exports of AI Chips From Nvidia and AMD to Some Countries****미국, 엔비디아와 AMD의 AI칩 수출 일부국한테 상한선 조정**

-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고급 AI칩 수출의 국가별 상한선 조정을 논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 주요 AI 제조업체들의 반응은 불분명하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중국에 대한 칩 규제를 발표했을 때, 중국 시장에 판매 가능한 수준으로 AI 제품을 재설계했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중동 및 다른 지역의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기업과 해당 국가 정부의 보안 약속에 기반해 검토 및 사전 승인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향후 승인을 받기가 더 쉬워진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WSJ: China's Exports Slow But Continue Run of Growth****중국 수출,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

- 9월 중국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에는 중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었다.
- 중국 관세국 대변인 Lv Daliang은 9월 수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주요 수출 허브인 양쯔강 삼각주에서 태풍을 포함한 악천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대한 수출은 8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지만, 9월엔 5.5% 증가했다. EU에 대한 수출도 8월 13.4% 증가에서 1.3% 증가로 줄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8월 5% 증가에서 2.2% 증가로 줄어들었다.
- Capital Economics의 이코노미스트 Zichun Huang은 중국 재무부가 주말에 발표한 재정 조치로 적어도 1~2분기 동안은 건설 활동을 늘리고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Pinpoint Asset Management의 사장 Zhiwei Zhang은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 수출 성장은

더 이상 높은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재무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내년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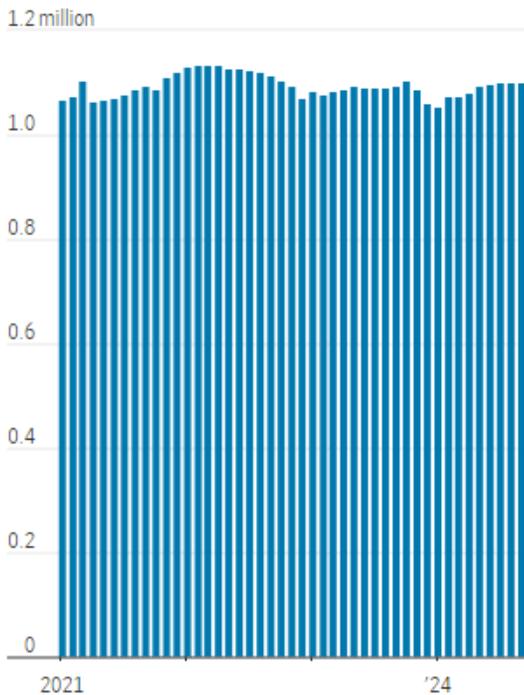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Logistics Operators Set Cautious Seasonal Hiring Plans
미 물류 업계, 계절 채용 늘리지 않는다

- 물류 업계가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 계절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숫자를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약 25만 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Target은 매장과 유통 센터에서 10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노동통계국의 계절 조정된 예비 자료에 따르면 9월 물류 부문 일자리가 2만2천3백개 감소해 약 440만 개를 기록했다. 최고치인 2022년 6월 약 470만 개보다 적고, 작년과 비교해도 줄어들었다.
- 소포 배송 데이터를 분석하는 ShipMatrix의 사장 Satish Jindel은 “쇼핑 시즌이 길어지고 온라인 대신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쇼핑객이 늘고 있다. 따라서 배송업체들이 계절 채용 계획을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ployment at couriers and messenger companies, including parcel carriers, in the U.S., monthly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WSJ 기사

Bloomberg: Walgreens to Shutter 14% of US Stores to Offset Weak Demand**Walgreens, 수요 줄어 미국 매장 14% 문 닫는다**

- Walgreens은 수요가 줄어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매장 14%의 문을 닫을 예정이다. 2025년에는 500개의 매장 문을 닫고, 향후 3년간 약 1,200개의 매장 문을 닫을 예정이다.
-
- Walgreens의 4분기 수익은 주당 0.39달러, 매출 295억 달러를 기록했다. 분석가들은 주당 0.36달러, 매출 275억 달러를 예상했었다. 공격적인 비용 절감 조치가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다.
-
- Walgreens의 CEO Tim Wentworth는 2025년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장 공간 최적화, 운영 비용 관리, 현금 흐름 개선, 환급 모델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Boeing to Sell at Least \$10 Billion in Shares to Plug Cash Drain**보잉, 현금 고갈 막기 위해 100억 달러 주식 매각 예정**

- 보잉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100억 달러를 모으려고 하고 있다. 현재 보잉은 노조 파업으로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 파업 전에도 한 달에 약 1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 보잉은 회사 유동성 접근을 위한 신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보잉 주가는 연초 약 250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15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신용 평가 회사들은 회사 자본을 늘려야 하며, 부채가 정크 등급(junk status)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 기사

[보고서]

**연준 월러 "금리인하 신중하게...내년에도 점진적으로 해야"
카시카리 총재도 "소폭 추가 인하가 적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연준이 금리인하를 신중하게,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역시 이후에는 완만한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4 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후버 연구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지난 9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함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